

## 동양선교교회

#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열네번째 글

### **재정보고, 새해 예산안 서류 없이 영상으로만 처리 반대소리 드높은데 “통과됐다”박제임스장으로 선포**

지난 12월 10일 금요일예배 후에 12월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날의 제직회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직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진즉에 당회원의 임기가 끝난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정로가 낮 두껍게 사회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직회에서는 회계보고를 할 때 재정보고 서류가 첨부돼있다고 순서지에 기록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항의하자 영상으로 띄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이세훈 장로가 단상으로 올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석재 장로는 “받아드리기를 찬성하십니까?”고 물었고 장로들과 부인 몇 명이 “찬성 합니다”고 했고 나머지 제직들이 “반대 합니다”고 큰소리로 외쳤건만 박석재 장로는 “찬성이 있어 통과됐음을 선포 합니다”면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박장로야 말씀드린 대로 낮이 두꺼워 그랬다고 치고 나머지 장로들,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은 어떻게 이런 회의 진행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인격과 지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 편에 있는 이호성, 이승래, 박흥식, 엄창웅, 최형수 집사 등 비교적 젊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들은 또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올해 교회 총수입 61만 달러 밖에 안 된다고 발표 계산해보니 100만 달러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상적인데 있지 않습니다. 이날 장주영목사가 작성해서 박환 장로에게 전달했던 2011년 예산안 서류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 우리 교회의 수입 총액은 61만 1천 668달러 밖에 안됐던 것으로 돼있습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그런데 재정보부가 그동안 나눠준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동안 당회는 멋대로 제직회를 열었다, 중단했다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발표된 8개월 치의 현금 액수만 해도 1백 12만 923달러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0 수입 및 지출 결산서

항 목		2010 결산
수 입	4000000	611,668.30
경상수입	4010000	579,135.69
십일조	4010100	290,980.64
감사	4010400	64,351.20
작정	4010200	23,444.78
주일	4010500	51,230.95
선교	4010600	71,266.00
신년	4010700	26,721.00
부활절	4010800	0.00
추수감사절	4010900	998.00
성탄절	4011000	33,410.00
창립기념	4011100	0.00
기관	4020000	9,726.12
기타	4040000	7,007.00
특별헌금	4050000	13,681.55
기타수입	4300000	18,851.06
지 출	5000000	984,639.02
석이예배부	5A10000	5,412.00

재직회에서 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아래 도표참조)를 그대로 합해봤습니다. 2009년도 12월의 수입, **17만1천787달러**+금년 1월의 수입, **17만5천14달러** +금년 2월의 수입, **15만4천832달러** +금년 3월의 수입, **11만798달러** +금년 4월의 수입, **11만557달러** +금년 5월의 수입, **15만6천725달러** +금년 8월의 수입, **11만7천553달러** +금년 11월의 수입, **12만3천657달러** =이들 8개월의 총계는 **1백12만923달러** (이액수는 헌금만을 더한 것입니다)

재정부보고서

월	수 입				지 출			
	예산	현금실적	예산대실적 차액	비율	금년도	작년도	작년도 차액	
12월 09년	335,692	171,787	-163,905	51.2%	291,766	695,713	-403,947	
01월 10년	395,615	175,014	-220,601	44.2%	204,134	669,960	-465,826	
2월 10년	335,692	154,832	-180,860	46.1%	578,752	615,706	-322,924	
3월 10년	395,615	110,798	-220,601	28.0%	722,989	771,077	-576,531	
4월 10년	4,292,000	110,557	-220,601	2.6%	540,287	644,626	-477,239	
5월 10년	412,333	156,725	255,608	38.0%	603,484	616,426	-433,941	
8월 10년	412,333	117,553	294,780	28.5%	769,231	590,694	-393,822	
11월 10년	412,333	123,657	288,676	30.0%	769,231	590,694	-481,244	

중간에 제직회를 열지 않아 6월과 7월 그리고 9월과 10월 등 4개월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매달 **14만115달러**이었으며 이를 12개월로 곱하면 그 액수는 **1백68만 천384달러**가 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장로들은 2010년도의 총 수입이 61만 1천여 달러라고 밝혀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감춘 것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장로 등은 왜 1백만 달러나 되는 거금을 감추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입니다.

### **기타 수입에서도 무려 50만달러 이상 기록 없이 빠져 아파트, 주차장 렌트비, 오후학교 기금 등 아무것도 없어**

의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수입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기타수입이 1만 8천 851달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재정부가 스스로 보고한 제직회 보고서에 따르면 1월에 2만 달러, 2-3월에 1만 1천636달러, 5월에 2만2천454달러, 8월에 419달러, 11월에 5천569달러 등 6월과 7월 9월과 10월 등 4개월(재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음)을 빼고도 모두 6만 79달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4만 달러 이상을 줄였습니다. 더구나 1월 달의 2만 달러는 오후 학교에서 재정부에 납부한 10만 달러중의 일부였습니다. 당시 재정부장이었던 채홍인장로는 나머지 8만 달러도 입금했다면서 입금내역과 수표 사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타 수입은 14만 달러가 돼야 하는데 1만 8천 851달러밖에 안 돼, 결국 12만 달러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구나 오후 학교에서 올해 초 일시불로 10만 달러를 지불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나눠서 내도록 했으므로 다른 10만달러가 추가돼 그 총계는 22만 달러가 됩니다.

### **아파트 렌트 연간 수입 26만 달러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돈, 100만, 기타수입 50만 등 150만불 실종**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432 Oxford Ave 에 7개의 2베드룸 아파트와, 423 Oxford Ave에 16개의 2베드룸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개의 아파트 중에서 한 개가 외부 손님접대용이라면 22개가 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파트 당 렌트비가 1천 달러라고만해도 매 달 2만 2천 달러의 렌트비가 들어오고 1년이면 26만 4천달러의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웨스턴 건너의 주차장의 일부를 렌트해주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낸 현금 1백만 달러와 기타수입 50여만 달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 **변호사비, 시큐리티 비용, 홍목사청빙 비용 하나도 없어 이세훈장로 서울갈 때 부인 비행기표도 교회 돈으로 구입**

지출 결산서는 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인들을 몰아내기위해 3번의 TRO 신청을 비롯한 재판 비용, 그 가운데 막대한 변호사 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수 십 명씩 수차례 불러들인 시큐리티 가드 비용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홍민기 목사를 청빙하기위한 비용도 빠졌습니다. 홍목사가 뉴욕에 왔을 때 박제임

스(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이 대거 찾아가 읍소를 하면서 청빙 구걸을 했습니다. 박제임스, 엄문섭, 이세훈 장로 등은 홍목사 청빙을 이유로 서울 나들이를 뺏길나게 했습니다. 이세훈 장로의 경우, 부인 이장순권사의 비행기 표까지 교회 돈으로 지불, 한 때 장로들 가운데서 큰 소리가 오가는 험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홍목사 때문에 몇 만 달러가 지출됐었는데도 기록이 없습니다.

## **들어오고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은 명백한 부정**

### **올해 수입 60만 달러인데 내년 예산은 500만불 이라니...**

기록이 없다는 것은 부정입니다. 재정부에는 현직 CPA인 이승래집사가 있고 회계학 학원 강사였던 장주영목사가 총지휘를 한 작품이 바로 이번 결산 및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점투성이입니다. 결국 허점이 아니라 부정인 것입니다.

더 깜짝 놀랄 일은 지난해 총 수입이 60여만 달러인데 내년도 예산은 500만 달러로 책정한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애들 장난”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돈을 여기저기에서 빼먹다보니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 **박제임스 장로 “홍목사 안온다” 공식발표**

### **안오는 줄 알면서 5개월을 질질 끌더니**

### **“정통회 방해 때문에 오고싶는데 오지 못했다” 책임전가**

지난 12월12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시간에 박제임스(박석재)장로가 광고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홍민기목사가 우리교회담임목사로 오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지난 7월의 영터리 임시공동총회의 결정 이래 5개월 동안 “온다”, “안온다”던 홍목사의 해프닝이 일단락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석재 장로의 다음 얘기입니다. 박장로는 “정통위의 시위와 방해 때문에 홍목사가 오고 싶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했다” 면서 모든 책임을 정통위로 떠 넘겼습니다. 우리는 홍목사가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박장로의 자작극임에 틀림없습니다.

홍목사는 지난 8월 17일 서울의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 번째 “노”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동양선교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교회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갈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하는교회에 있는 것 같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결국 홍목사는 정통위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오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홍목사 안온 것은 장로들 하는꼴 보고 안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 이때문에 우리교회 직접 찾아와 교인들에게 정중히 사과**

우리가 아는 대로 홍목사는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 목사입니다. 홍목사는 정통위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주저했을 인물이 아닙니다. 반대가 있다면 오히려 그 반대를 뒤엎을 사람입니다. 문제는 박제임스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장로들을 여러 번 만나보고 그리고 청빙 과정과 추진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목사는 또 지난 11월 28일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 주일 3부 예배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본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개척한 교회가 아직 4년이 채 안된 교회인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면서 죄송하다고 사죄까지 했었습니다. 홍목사는 탱크를 물고 우리교회에 진입, 정통위가 아니라 박제임스를 비롯한 당회원들을 향해 발포한 것입니다.

## **청빙을 위한 공동총회가 불법이었는데 어떻게 오나? 불법 총회 주도한 박석재 등 장로들 때문에 안 온 것**

홍목사는 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는 총회가 어디 있느냐”며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또한 총회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공동총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홍목사가 우리교회에 오고 싶는데 “정통위의 반대”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불법 공동총회 때문에 못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불법 공동총회를 만든 박제임스(박석재)장로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 장로들 때문에 못 온 것입니다.

## **5개월간의 기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성숙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제임스(박석재) 장로가 이끄는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5개월 동안 매주 주보에 “홍목사가 담임목사로 오게 해 달라고 합심기도하자”면서 전교인의 기도제목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래로 사회를 보는 부목사들은 다른 광고는 안 해도 이 광고는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장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원로 장로님들까지 대예배 기도시간에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말 기도제목으로 삼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새벽기도, 중보기도, 크고 작은 모임, 심지어 구역 모임 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간구했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매주 대예배시간마다 “홍민기의 오늘의 양식”이라는 무식한 제목의 영상을 쉬지 않고 띄우더니 12월 5일 예배시간에는 “홍민기의 인생관”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제목으로 발악적으로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니다. 그런데 박장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통회” 탓으로 돌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고, 초신자들도 따라하는 “하나님의 뜻”을 명색이 장로가 그것도 “임시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애들처럼 “저애 때문에 그랬다”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그 분의 지적,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수준 때문에 오늘날 동양선교교회가 이런 수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26일 주일에 엉터리 불법 공동총회 또 다시 연출 150만 달러 빼먹은 부정 지출, 예산안도 통과시킬 것**

박석재 장로를 비롯한 장로들은 또 다시 7월의 엉터리, 불법 공동회의를 다시 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26일에 열기로 한 정기공동회의입니다. 그들은 그때와 똑 같이 1, 2, 3, 4, 5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각각 공동회의를 연다는 것입니다. 지난 40여년동안 우리 교회는 3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한인교회 전체가 똑 같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박석재장로를 비롯한 이용성,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장로 등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감시기능이 없어져 자기들 멋대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찬, 반 결정도 자기들편의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찬성 합니다”고 하면 아무리 “반대 한다”고 소리를 쳐도 못들은 척 “찬성 있으므로 통과 됐습니다”는 식, 한마디로 국민학교 학생들도 하지 않는 무식한 박제임스 식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동총회 책자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자고 할 것입니다.

거기마다 자신들의 맛에 맞게 헌법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교회는 마지막 순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박석재를 비롯한 이영송, 최수남, 엄문섭, 이세훈, 이영세, 박환, 채홍인 등의 장로들이 꾸며온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날이 머지않아 바로 그들 앞에 놓일 것을 확신합니다.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 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마당”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

## **동양선교교회의 외복 대책위원회의**